

조기·갈치 풍어... '수산 목포' 명성 되찾다

목포수협 제2의 도약

어획고 전국 최고...年 위판액 1500억
친환경 수산종합 지원단지 조성 박차
2017년 북항 이전 경쟁력 업그레이드



목포 수산업 발전을 견인할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 단지' 조감도.



참조기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인 목포수협 위판장 모습. 참조기의 전국 생산량의 32.3%를 차지할 만큼 최대 산지로 꼽힌다.

새벽 5시, 오징어 집어들보다 환하게 불을 밝힌 위판장. 먼 바다에서 막 잡아 올린 참조기들이 수천의 상자에 담겨 황금빛을 발한다. 도무지 알아듣기 힘든 외계의 언어를 쏟아내는 경매사들의 목소리만큼이나 중매인들의 현란한 손놀림도 외계인들의 수신호를 방불케 한다.

11월 들어 참조기 어획량이 늘어남에서 '바다에서 황금을 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요즘 같은 연근해 어선 한 척의 위판액이 1억을 훌쩍 넘어선다. 선창 주변에는 조기 따는 아주머니들로 진풍경이 펼쳐진다.

사실상 목포경기는 선창경기와 조선경기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선창경기를 가늠하는 척도인 목포수협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연간 위판액이 1500억 원대에 도달하면서 '3대항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유내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수산 전남'을 대표하는 선두 주자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목포수협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수산 전남' 선두 주자=전국 수협 가운데 위판 규모로 보면 목포수협이 부산 공동 어시장(5개사), 제주 어류 양식 조합에 이어 전국 3위지만, 순수하게 어민들이 잡은 어획고 위판으로 보면 전국 1위 수준이다.

참조기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32.2%를 차지할 만큼 최대 산지로써 위상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등공신인 조기 어획 호조에 힘입어 목포수협 설립 76년 만에 역대 최고인 1550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조기·갈치 등 주 어종의 전반적인 어획 부진 속에서도 10월 말 현재 1000억 원을 돌파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말까지 1300억은



최근 목포 내항에서는 참조기를 따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수협은 현재 2개 시·3개 군(목포·나주시, 무안·함평·영암군)을 관할구역으로 조합원 3000여명을 두고 있다.

주요 위판 수산물로는 단연 조기와 갈치가 꼽힌다. 목포 수협 위판고를 견인하는 효자 어종이다. 두 어종의 어획량에 따라 위판고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로 조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갈치는 6.7월을 제외하고 연중 꾸준해 나온다. 또 4~5월에는 농어, 6~7월에는 병어·민어·돔이 많이 위판 된다.

특히 목포수협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조합원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수협경영은 조합원들의 사업 촉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게 최정식(65)조합장의 소신이다.

또 수협은 단일 법인이면서도 지도·경제·신용

등 3각 운영체제로 분화돼 사업부문간 갈등이 적지 않다. 최 조합장 체제 출범이후 이 같은 갈등과 알력을 불식시켜 사업부문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을 제1의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

◇내항시대 접고 북항 이전 '제2의 도약'=설립 이후 78년 만인 오는 2017년 상반기에 내항 시대를 접고 북항으로 이전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수협은 목포시와 함께 수협 사상 최대 프로젝트인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 지원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 가공 선진화 단지'를 모델로 삼은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로 총 354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산물의 생산·가공·

유통·물류가 원·스톱으로 이뤄져 전국 어느 항구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북항 수산관련 단지 11만 8843㎡ 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2만8095㎡ 규모로 선수물자 보급창고(1350㎡), 새우젓 위판 동(2650㎡), 선어 위판장 시설관리 (1만1900㎡), 복지센터 판매 동(2800㎡), 수산물가공 냉동냉장 동(8600㎡)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남 수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목포의 경우 기초적인 냉동·냉장·제빙·저빙 시설이 없을 만큼 환경이 매우 열악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수산물을 위판만 할 뿐 가공이 불가능해 제 값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김민성(58) 상임이사는 "목포가 항구도시이지만 이에 걸 맞는 대표적인 특산품이 없어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목포의 특산품이 뭐냐고 물을 때 수산인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냉장, 냉동, 제빙시설 노후화와 절대 부족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연간 200억원대의 수산물이 자체 수용 처리되지 못해 외지로 반출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김 이사는 "수산물 지원 단지 조성은 목포 수산업 발전은 물론 전남 수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목포수협의 어업 인프라를 개선해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해 생산, 가공, 유통,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를 타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항은 연근해어업의 주역인 동중국해와 서남해에 가장 가까워 지역 어선은 물론 외지 어선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 내년부터 '야경 시티투어'

체류형 관광객 늘리기로

'해양 관광 중심도시'를 표방한 목포시가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위해 내년부터 '야경 시티투어'를 한다.

목포시는 30일 "관광명소와 문화유산을 코스로 하는 주간 투어에 이어 야간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만의 야간 투어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경 시티투어는 관광 성수기인 7~8월에는 주 5회(화, 수, 목, 금, 토)운영하고 동절기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주 2회(금, 토) 운영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야경 시티투어 운영 노선은 평화광장을 출발해 영산강 하구둑→대불 산단→목포대교→노적봉→루미나리에 거리→갯바위 해상 보행교→음악분수 관람하는 코스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탑승요금은 어른 5000원, 군인·경로학생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최신희 관광과장은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주간 시티투어 위탁운영사와 협약을 변경해 주·야간을 병행해 운영하는 안과 위탁업체와 별개로 야간 시티투어 운영사 공모를 거쳐 신규로 선정하는 안 등을 검토해 내년 1월 최종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의회 내년 예산 심사 돌입

목포시의회가 2015년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찬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결위는 12일 까지 집행부로부터 본예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목포시 본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할 방침이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가의 복지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예결위에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쓰이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남 방송국~본옥동 간 도로개설, 트윈스타 등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들로 인하여 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6기 박홍률 시장의 실질적인 첫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 의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228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신프리모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함촌

오늘의 물중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함세트 (탕+우렁+구이)	50,000원
백함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옆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경찰청 정문앞